

2023. 3. 29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29일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재무국 38세금징수과

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2133-3450

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2133-3452

담당자 곽배호 2133-3458

교통지도과장 최승대 2133-4550

과태료과징팀장 김진경 2133-4568

담당자 노미선 2133-4569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4쪽

### 서울시, 오는 30일 자동차세·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

- 시·25개구 직원 300명이 일제히 서울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
- 자동차세 체납차량 542천건, 609억원, 과태료 체납차량 507천건 668억원
- 합동단속에 앞서 지난 10일 98,096명에 대해 안내문 발송하여 85억원 징수
- 소상공인·자영업자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자는 분납 안내로 납부 유도

#### # 고액·상습 체납자 소유 차량을 추적으로 분납 약속

중국인 A는 고급 국산차량 GV80(2020년식)과 G70(2020년식)을 운행하면서도 '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81백만원을 체납한 외국인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차량 두 대가 주차된 사실을 확인 후 강제 견인하려 하자, 2년에 걸쳐 매월 350만원씩 나누어 낼 것을 약속했다. 향후 약속 불이행 시 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공매할 예정이다.

#### # 고액·상습 체납자 인도명령서 받고 밀린 세금 일시 납부

B는 고급 외제차량(레인지로버 스포츠 2019년식)을 운행하는 체납자로서 고급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하여 차량을 압류 등록하고 인도명령을 하자 밀린 세금 12백만원을 일시에 냈다.

-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·구 공무원 300여명을 동시에 투입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.
-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56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,192천대 대비 8.0%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시세 체납액 7,228억원의 8.4%를 차지하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.



- 또한, 주정차 위반,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(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)은 507천건, 668억원에 달한다.

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현황 〉

(단위: 천건, 억원)

구 분	체납건수	체납금액
합 계	507.4	668
주정차 위반	390	200
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	66	357
자동차관리법 및 (검사)위반	30	86
(시)버스전용차로 위반	14	9
자동차관리법(검사미필)위반	5	14
(구)버스전용차로 위반	2	1
자동차관리법 위반 기타	0.4	1

- 특히,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는 36,252명이며 체납 차량은 36,149대, 체납액은 29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의 48.4%를 차지한다.
- 상습·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불법명의 이전 차량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강제 견인을 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.

〈 자동차세 전체 체납현황 〉

(단위 : 명, 대, 천건, 억원)

전 체				상습체납(4회 이상)			
체 납 인 원	차 량 수	체 납 수	체 납 액	체 납 인 원	차 량 수	체 납 수	체 납 액
237,013	255,593	542	609	36,252	36,149	255	295

〈 자동차세 체납건수 상위 〉

(단위 : 대, 건, 백만원)

구분	순위	나이	차량대수	체납건수	체납금액
개인	1	52	17	118	25
	2	57	39	232	25
	3	67	2	40	20
	4	52	22	72	20
	5	65	2	24	19
법인	1		80	632	114
	2		80	342	96
	3		112	799	61
	4		32	279	61
	5		74	490	56

- 서울시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, 체납자 중 거주불명자,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, 기존 단속 중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98,096대의 체납액 23,351백만원에 대한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안내하였고 85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였다.

- 또한 취득가격 5천만원 이상, 10년 이내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고액·상습체납자 383대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여 향후 인도받은 차량을 공매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.
  
- 다만, 물가상승,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.
  
-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“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의무이다.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.”라고 강조했다.